

## 경기 논쟁이 무의미한 한국 경제

현대경제연구원 상무 유병규

올해 1/4분기 국내 경제 성적이 발표되었다. 당초 전년 동기 대비 3%대까지 낮아질 것이라는 우려와는 달리 4% 성장세는 유지하였다. 그런데도 1/4분기 경제 실적이 발표되면서 국내 경기의 향방에 대한 입장이 서로 엇갈리는 입장이 표출되고 있다. 국내 경기가 이제 본격적인 회복 국면에 접어들어 U자형의 경기 회복세를 나타낼 것이라는 입장이 있는가 하면, 경기 회복세가 미약하여 지금의 침체 양상이 이어지는 L자형 경기 형태를 보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경기 판단에 혼선이 일고 있는 것은 국내 경기 부문별 지표들이 혼조세를 띄고 있는 데 주요 원인이 있다.

우선 다행스러운 것은 수요 측면에서 수출이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내수 경기가 이전에 비해 살아나는 조짐이 보이고 있는 점이다. 국내총생산 내 수출은 1/4분기에 전분기 대비 2.8% 증가해 작년 4분기의 -0.5%에서 증가세로 재반전 되었다. 내수의 가장 큰 부분인 민간소비 증가율도 1/4분기에 전분기 대비 1.3% 증가하였다. 2006년 2/4분기의 0.6% 이후 3/4분기 0.9%, 4/4분기 1.0%에 이어 3분기 연속 상승폭이 커지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민간소비와 함께 내수의 또 다른 중심축을 이루는 설비투자도 호전되어 1/4분기에 전분기 대비 4.0%나 늘었으며, 이는 지난 2005년 4/4분기의 5.2%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경기 지표상으로는 국내 경제의 양축인 수출과 내수가 조화롭게 성장하는 ‘쌍끌이 경제’의 바람직한 모습이 실현되는 양상으로 파악할 수 있다. 특히 내수 부문이 살아나는 기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올해 경기의 부진 요인으로 지목되었던 복핵 문제 등의 심각성이 완화되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주식시장의 호황에 의한 자산 효과가 일부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문제는 생산 측면에서 제조업 생산이 극심한 부진세를 기록하고 있는 점이다. 제조업 성장률이 1/4분기에 -0.8%를 기록하여 카드채 사태가 발생했던 2003년 1/4분기에 -1.0%를 나타낸 이래 4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그 결과 분기마다 우리 경제의 성장세를 이끌었던 제조업은 올해 1/4분기에 오히려 성장률을 끌어내리는 역할을 했다. 제조업 감소로 인해 줄어든 경제성장률은 0.2%포인트나 된다. 설 연휴 등에 따른 조업일수 감소의 영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국내 제조업의 생산 활동이 침체되고 있다는 적신호가 켜진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물론 서비스업이나 건설업이 성장세를 유지하여 전체 성장률이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였나, 국내 GDP의 30%를 차지하고 있어 고용 등 국내 경제에 대한 파급 효과가 큰 제조업 생산의 부진은 국내 경기의 빠른 회복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더욱이 국민들의 실질적인 소득 증가를 가늠해주는 국내총소득(GDI)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0.7%로 떨어졌다. 국민 개인의 소득증가율이 경제 평균 성장률을 밀도는 성장의 외화내빈 현상이 수년째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국가 경제의 규모가 커지는 만큼 국민 각자의 호주머니도 함께 채워져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셈이다. 국민 소득 증가가 경제 성장을 밀도는 근본 이유는 실질 무역 손실이 커지고 있는 데 있다. 1/4분기 실질무역손실액은 19조 3,912억 원으로 분기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국제 유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비철금속 등 원자재 가격도 급등하고 있는데 반해,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 등 정보기술(IT)품목의 수출 단가는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 심화 등으로 계속 하락함에 따라 교역조건이 악화돼 실질 무역 손실이 계속 불어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수출은 늘고 있으나 밀지는 장사로 실속은 없다는 얘기다. 실질 소득의 감소는 경제주체가 피부로 느끼는 체감 경기를 악화시켜 소비와 투자 증가를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국제수지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점도 국내 경기의 불안 요인이다. 국내 경상수지는 3월에 15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상품수지 흑자는 늘었지만 서비스·소득수지 적자폭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상품수지 흑자와 서비스수지 적자폭의 역전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2006년 1/4분기 상품수지는 52억 달러 흑자로 서비스수지 50억 달러 적자를 능가하였다. 그러나 2007년 1/4분기는 양 부문 모두 62억 달러로 동일한 수준을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가 축소되면 국민소득이 줄고 외화 부채가 늘 수 있어 고용과 소비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가계 부채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청년 실업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는 점도 국내 경기 회복의 큰 짐이 되고 있다. 가계 부채는 소비 버블이 붕괴되었던 2003년말에 447.6조 원에서 2006년말 현재 582조 원으로 급증하였다. 증가 속도도 매우 가파르다. 2003년 4/4분기말에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이 1.9%였으나 2006년말 10.4%로 수직 상승하였다. 국내 실업률은 3.5%대로 거

의 완전 고용 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나, 구직 단념자가 여전히 많고 15세에서 29세에 이르는 청년 실업률은 7.5%로 전체 실업률의 2배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학 졸업생의 구인배율(일자리수/취업희망자수)을 보면 2002년 0.74에서 2003년부터 추락하기 시작하여 2006년에는 0.48, 올해에는 0.25까지 떨어졌다. 일자리 하나를 두고 학생 4명이 경쟁을 하고 있는 셈이다. 가계부채가 늘고 고용이 부진한 상황에서 소비가 큰 폭으로 늘어나기는 힘들다.

대외 경제 여건이 악화될 요소가 잠복해 있는 것도 한국 경제에는 부담 요인이다. 주택 경기 부진 등에 의해 미국 경제가 더욱 침체되고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계속 누적되어 원화 가치가 상승세를 유지한다면 국내 수출은 증가세가 약화될 것이다. 또한 정부 정책의 부메랑 효과도 향후 국내 경기 회복을 위해 극복해야할 주요 과제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출 금리 인상, 부동산세 부담 등으로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고 자산 가치가 급락하면 국내 소비와 건설 경기의 위축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국내 경기 지표들과 대내외 여건들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국내 경기가 회복 국면으로 접어든다 해도 회복 속도는 그다지 빠르지 않을 듯 싶다. 최근 몇 년 사이에 국내 경제는 1년 주기로 4%대를 기준으로 대칭형 경기 순환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1년 정도 경기 회복 추세가 나타나다 다시금 1년 정도 침체기로 돌아서는 데 회복기와 상승기의 대칭되는 분기별로 합산하여 평균을 내면 4%대선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양상이 2007년에도 유지된다면 상반기에는 전년동기대비 4% 내외를 하반기에는 4%대 중후반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준 년도의 경기 실적에 따라 성장률이 결정되는 기술적 반등 정도의 회복이 예상되고 있는 것이다. 하반기부터 국내 경기가 본격 회복된다 해도 2007년 한국 경제는 여전히 4%대의 성장 기조에 머물게 되는 셈이다. 청년 실업과 구직 단념자 문제를 어느 정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적어도 5% 성장을 해야 하는 국내 경제의 입장에서는, 4%대 성장세는 저성장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

4%대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현재의 경기 순환 주기 속에서 경기의 호불황이 분명한 것을 기준으로 하는 경기 침체와 회복을 논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 보인다. 따라서 지금의 국내 경기 대책은 경기 회복을 유도한다는 소극적 차원보다는 국내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한 단계 상승시킨다는 보다

적극적인 측면에서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내수를 확충하고 성장 동력을 강화하여 5%대 성장 경제로 도약할 수 있는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는 뜻이다. 우선 소비 증가세를 이어가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고용 증대는 단기간 내에 실현되기 어려우므로 증시 활성화, 부동산 가격의 급락 방지 등을 통해 소비의 자산 가치 효과마저 약화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다. 제조업의 국내 투자를 늘리고 새로운 성장 원천을 확보하여 제조업의 경쟁력과 수익력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도 보다 적극적이며 구체적으로 강구해야 한다. 한미 FTA 체결의 긍정적 효과가 제조업에서 가장 크게 창출되는 것으로 분석되는 점을 감안할 때 이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차원에서 제조업 강화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최근에 일본 경기가 잃어버린 10년에서 벗어나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은 결국 과감한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제조업 투자가 살아난 점을 정책 당국은 매우 중요한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신성장 동력 확보와 관련해서는 혁신적인 중소기업들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커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와 경상수지 흑자 기조 유지를 위해 매우 시급한 과제인 부품 소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나, 새로운 기술 산업 분야에 대한 모험적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는 중소기업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까닭이다. 특히 중소기업들이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기업 규모를 기준으로 하는 각종 정부 규제들은 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 < 최근 국내 경기 추이 >

